

高等敎育의 高度化와 課題

河 仁 鎬

(中央敎育研修院 副敎授)

文明的發達과 時代的 狀況의 變化에 따라 大學의 目標과 敎育內容, 國家社會로부터의 公的 期待도 變貌해 왔다. 高度化되어 가는 高等敎育이 量的, 質的 發展의 均衡的 調和를 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高等敎育이 當面한 主要課題에 대한 歷史的, 比較敎育學的 究明과 이의 올바른 理解가 필요하다.

I. 머리말

오늘날의 高等敎育은 産業化·科學化·專門化·民主化와 함께 날로 高度化되고 있다. 이러한 고도화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全世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哲學的·政治學的·社會學的·倫理學的 側面에서 論議되어야 한다. 高等敎育이 高度化의 過程에서 均衡을 잃어 버렸을 때는 더욱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이나 南美의 몇 개 국가에서 고등敎育의 産業化나 民主化가 증진되었을지라도, 高等敎育의 科學化와 專門化의 길은 요원하다. 특히 平等主義(egalitarianism)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平等과 能力 및 個性의 調和를 통한 合致點을 찾지 못하게 된다.

고등敎育의 고도화 속의 모든 문제는 우선적으로 哲學的 側面의 論議를 통하여 그 前提와 假

說이 먼저 設定되어야 한다. 高等敎育의 理念과 原理는 하나이며 항상 변화지 않는 恒存性을 가지고 있다. 時代的 要求와 地域的 特殊性에 따라서 外面의 차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本質的 要素는 대체로 一致한다.

II. 大學의 自律性의 어제와 오늘

大學의 自律性(self-governance)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大學은 學問을 하는 곳이며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人類의 平和와 戰爭이 대학의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준비되어 왔는지 모른다. 오늘날의 美國의 MIT의 링컨실험실이나 소련의 노보시빌스大學校(The State University of Novosibirsk)¹⁾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人類의 發展과 社會發展을 위한 조심스러운 自律性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1. 大學의 發生과 自治

集團的 學問研究의 시작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等地에서 시도되고 근대대학의 발생은 파리대학과 볼로냐 대학의 教授集團과 學生集團의 區分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 후에 영국의 옥스브리지가 형성되고 19세기 중엽에 독일의 훔볼트는 옥스브리지의 학문에 대한 반발을 제기하였고 미국은 옥스브리지의 모델에 훔볼트의 이상을 받아 들였다. 바로 이러한 학문적 흐름은 대학의 발생에서 획득한 自律性的의 기반위에 이루어졌다.

大學의 發生은 自治權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의 모델은 유럽의 모델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Cathedral 모델로서 교황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여 대학을 설립하였다. 다른 하나는 Grant 모델로서 영국의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여 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傳統에서 大學의 學問的인 힘은 自治權이나 自律性的의 基盤위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져 왔다.

이러한 自律的 傳統을 대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大學은 公·私立을 막론하고 社會的 公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自律性和 自治權의 획득과 동시에 대학은 대학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憲章을 제정하고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 憲章은 人類와 國家 및 社會에 대한 엄격한 公約이었다. 대학의 自律性은 公約속에 존재되어 왔으며 이는 대학이 엄청난 學問的 힘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基盤이다.

2. 現代社會와 大學의 自律性

오늘날 대학의 自律性和 自治權에 대한 문제의 발단은 대학의 機能이 教授와 研究 외에 社會奉仕라는 면이 追加됨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대학의 사회봉사의 기능 없이는 사회의 발전이 어렵고 또한 이러한 기능을 요청하는 公共壓力 혹은 公的 期待와 정부의 關與는 대학의 自律性을 어렵게 만들었다.

1957년의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의 충격에 따른 국가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을 때, 대학과 정부간 상호요구의 調整이 필요하게 되었고 調整은 대학의

自律性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고등교육의 발전면에서의 선진국은 이미 1960년대에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1) 調整機構의 設置

이러한 調整機構의 必要性은 사실상 제 2차대전을 전후하여 제기되었다.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의 발전계획을 지원하고 정부는 대학의 진정한 학문적 발전을 지원하는 상호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필요하고, 국가발전을 위하여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關與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발생과 함께 주어졌던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가 방과제나 쉐기로써 中間調整機構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국의 대학 그랜트 위원회(The University Grant Committee), 서독의 대학총장협의회 또는 科學協會(The Science Council), 불란서의 高等教育協會(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미국의 각 주의 高等教育調整委員會(The State Committee for Higher Education), 또는 각종 협의회와 연합회 및 大學 評價協會는 정부와 대학간의 방과제로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지원체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들의 의사결정은 學問的 基盤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²⁾

우리 나라에서는 늦게나마 82年 4월에 大學教育協會가 創設되었다. 앞으로 부과된 責務는 너무나 크다. 대학과 정부간의 協議調整機構로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또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의 지원 등 어려운 課業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기구의 성장을 위한 대학과 정부의 관심은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2) 政治化

중세기의 대학의 자율성은 社會와 캠퍼스가 격리된 독립적 영역에서 추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의 자율성은 社會속에서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추구되고 있다.

오늘날 대학의 정치화는 高等教育이 經濟 및

社會發展의 基本要素로서의 역할을 수행키 위하여 캠퍼스내에서의 構造가 다양해지고, 또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高等教育의 學問的 權威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³⁾ 政治化의 기본사상은 사이먼의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의 적용이었다. 즉 ① 고등교육의 意思決定을 위해서 다양한 집단의 대표를 참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大學理事會에 학생대표, 여성대표, 근로계층의 대표, 산업계의 대표나 종교계의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② 대학내의 집단을 다양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教授는 學問에 充實하고 學問的 課業에는 絕對者로서의 權威를 갖게 하는 것이다. ③ 대학내에 3權分立의 理想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학내에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나 위원회가 있게 되고 또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하여 大學行政家는 복잡한 법규해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法官이나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며 學生會의 고문변호사를 배치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캠퍼스는 民主社會의 政治構造를 받아 들이지 않고는 自律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大學行政家나 教授 또한 學問研究와 發展에 專念할 수 어렵게 되었다.

(3) 法制化

現代社會에서 대학의 自律性은 調整機構나 大學의 政治化를 통하여서만 추구될 수는 없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法的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憲法上的의 규정이 필요하고 각 大學의 法規制定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의 고도화 속에서 고등교육에 관한 法規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4) 公的 期待

대학의 자율성은 또 다른 국면에서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세금, 재원이나 등록금의 豫算問題에 있어서나 國民, 政府, 產業體, 學父母, 學生과 동창회로부터 오는 公的 期待는 더욱더 大學을 社會奉仕機能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大學이 學問的 自律性을 보장하기 위한 調整과 選擇이 國家的 次元에서 要求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70年代의 論爭의 결론은 각 대학의 개혁프로그램은 教授集團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Ⅲ. 傳統的 엘리트와 새로운 엘리트

오늘날의 高等教育의 高度化 속의 또 하나의 課題는 어떠한 人間像을 만들어 내느냐라고 할 수 있다. 傳統的으로 대학이 길러야 할 人間像은 고상한 신사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독일의 훔볼트는 영국의 옥스브리지의 學問性에 대한 반발을 제기하였다. 또 이와 때를 같이 하여 宗教的 價値觀이나 人文科學的 價値觀은 科學的·專門主義的 價値觀으로 代替되기 시작하면서 高等教育이 길러야 할 人間像의 概念도 專門家쪽으로 變化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教育內容의 變化를 가져 왔으며, 오늘날 高等教育의 탁월성과 보편성은 끝없는 論爭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아리스토크러시(Aristocracy)

古代社會의 엘리트는 貴族으로서의 아리스토크러시였다. 아리스토크러시는 우수한 지능을 소유하고 遺産에 의한 富와 父의 地位를 배경으로 하여 리버럴 아츠(liberal arts) 教育을 받으면서 社會의 지도자로서 엘리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플라톤의 메리토크러시(Meritocracy)

플라톤의 메리토크러시는 하나의 知的인 엘리트를 의미하였다. 플라톤의 教育哲學은 貴族主義的 性格을 포용하고 있으면서도 아리스토크러시는 받아 들이지 않고 知的 엘리트를 강조하였다. 그는 知的인 메리토크러시를 양성하기 위하여서 엄격한 선발을 教育의 필연적인 기능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近代大學의 엘리트 고등교육은 플라톤의 理想에서 출발되고 엄격한 리버럴 아츠教育이 요구되었다.

3. 새로운 엘리트로서의 메리토크러시

플라톤의 메리토크러시의 概念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레저思想, 市民性과 實用的 知慧는 새로운 메리토크러시 개념설정의 基礎가 되었다. 이러한 思想은 産業化·科學化·專門化·民主化와 함께 새로운 메리토크러시, 즉 새로운 엘리트로서의 專門家(Higher Professional)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哲學的 基底는 리버럴(Liberal) 教育을 배태시켰으며 선발 조건에 平等과 能力 또는 個性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고등교육의 學歷이 엘리트의 결정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專門家가 되었을 때 엘리트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새로운 엘리트로서의 새로운 메리트크리시는 “일에 중사하는 신사”⁴⁾로서의 專門家이다. 歐美에서는 이러한 엘리트의 개념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초에 定着되었다.⁵⁾

새로운 엘리트로서의 메리트크리시는 「競争에서 이겨야 한다. 경쟁의 수단은 能力·個性·成 就度이며 반드시 페어플레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메리트크리시는 教養面에서 上流階層의 知性을 소유한 일에 중사하는 신사이어야 하며 性格面에서 ① 코스모폴리탄적 ② 온건적 ③ 유니버설한 性格을 소유하고 地緣과 宗派를 초월하여야 한다.」⁶⁾ 오늘날 高等教育이 질터야 할 人間像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리버럴 아츠교육과 리버럴教育

오늘날의 高等教育이 리버럴教育의 범주를 벗어나 버렸을 때 論議의 대상이 되는것을 高等教育이 科學技術教育이나 職業教育과 무엇이 다르며 더 나아가서 高等教育을 받은 者와 받지 않은 者의 區別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게 된다.

리버럴 아츠교육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그리이스의 學問의 文化 속에서 그 개념설정을 구할 수 있다. 아테네의 학문이 사색적 생활에 관계를 맺고 있다면, 로마의 학문은 실용적 생활에 관계된다. 로마는 그리이스의 7大 自由教科에 실용적인 면을 가미하여 리버럴教育의 理念을 제공하였다.

중세에 그레코·로마형의 리버럴教育의 개념은 宗教的 側面을 받아들였으나 곧 리버럴 아츠教育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1852년의 독일의 훔볼트는 헤겔과 아리스토텔레스의 理想을 고등교육의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영국의 옥스브리지가 리버럴 아츠教育을 지행하고 있는 동안에 1824년에 미국의 예일大學은 리버럴教育의

개념을 설정하였는데 예일報告書에 나타난 리버럴教育의 概念은, ① 리버럴教育은 知的 文化 속에서 精神的 디스프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② 리버럴教育은 文獻과 科學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③ 理論과 實際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④ 古典語와 現代語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 이러한 가운데 19세기 후반기에서 20세기로 넘어 오면서 유럽의 학문은 헤겔의 영향을 받으며, 專攻教育內에서 教養教育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高等教育이 리버럴教育의 범주를 벗어나려 할 때 허친스의 恒存主義的 高等教育哲學이 擡頭되어 1945년의 하바드보고서와 1947년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리버럴教育을 강조하게 하였다.

그러나 1957년 이후의 歐美의 高等教育은 科學技術의 發展과 公共壓力으로 리버럴教育을 너무나도 실용적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리버럴教育의 意義를 되살리기 위하여 1970년대 後半期에 독일에서 뒤벵겐선언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하바드大學에서 코아 프로그램을 시험하게 되었다.⁸⁾ 고도의 전문교육과 과학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교양교육은 리버럴 아츠教育의 性格을 가미하여야 한다는 것이 코아 프로그램의 배경이다.⁹⁾

어느 장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高等教育은 리버럴教育의 범주내에서 論議·調整·選擇되어야 한다.

V. 엘리트 高等教育과 매스 高等教育의 補完性

오늘날의 고등교육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보편화 속에서도 탁월성은 추구되어야 한다. 엘리트 고등교육은 ① 高等教育人口의 增加 ② 勞働市場의 要求 ③ 平等主義 ④ 知識의 폭발 ④ 生活費의 增加 ⑤ TV의 출현 등으로 매스 고등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고등교육이 高度化되고 있을지라도 고등교육의 핵심은 리버럴教育이며, 또한 매스 고등교육의 핵심은 엘리트 고등교육이다. 고등교육의 고도화 過程에서 엘리트 고등교육과

매스 고등교육은 대립되기도 하지만, 相互補充體制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매스 고등교육에로의 과도기에서 특히 엘리트 고등교육의 역사가 짧은 社會에 있어서는 엘리트 고등교육의 약화현상을 불러 일으켜 學問의 發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고등교육의 고도화 속에서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잠재적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전환되어 진다. 하나의 대학이 학사과정,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엘리트 고등교육기관화 한다는 것은 기백년의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통을 가진 대학의에는 어렵게 된다. 너무나 많은 재정투자가 따르기 때문이다. 대개의 대학은 하나 또는 둘의 학위과정이나 몇 개의 프로그램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교육기관은 각 대학이 설정한 엘리트 교육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여 상호 지원체제 아래 고등교육이 지속되는 것이다.

VI. 論爭·調整·選擇

고등교육의 고도화 속에서 고등교육이 길러야 할 人間像으로부터 教育內容, 大學體制, 教授와 學生問題에까지 수많은 論爭이 벌어지고 있다.

1. 教授中心 對 研究中心

高等教育이 學問中心을 벗어났을 때 教授(teaching) 中心이나 아니면 研究(research) 中心이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에서 베르린 대학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研究도 學問의 범위내에서 가르치기 위한 연구였다.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가 教授(teaching)에 관계되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의 확대는 學問中心보다는 應用中心으로 때론 모든 研究가 社會開發中心으로 유도되었을 때에는 가르치는 것 자체와는 거리가 멀어져서 教授(teaching)의 개선과 학문 자체의 발전이 어렵게 된다.

2. 高度化·細分化 對 教養教育

教養教育과 專攻教育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高等教育은 리버럴教育이며, 이것의 구성요소로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나누어진다. 오늘

날 전공교육이 더 깊어졌다면 교양교육도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만 전공교육의 高度化와 細分化에 대응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의 밑받침(foundation)이 아니다. 전공교육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교양교육을 주축이나 빌딩의 건설에서 철근에 비유한다면, 종전의 교양교육은 주춧돌에 불과하다.

3. 獨立性 對 統合性

大學의 발생에서 學問은 統合的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학문의 끊임없는 발달은 學問의 細分化를 가져 왔고, 오늘날은 細分化는 學問의 獨立性을 유지하고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細分化는 學問性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때론 통합과목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4. 學問의 自由 對 國家利益

學問의 成果는 時間을 요하고, 社會發展의 高度化는 時急을 요한다. 여기에 學問의 自由와 國家利益間에 갈등이 초래된다. 學問의 궁극적인 발전은 人類를 위하고 한 國家와 社會에 공헌하게 된다. 國家의 당면과제가 획일적일 때 學問에 대한 제한이 따르고, 國家利益이 複數의일 때 學問의 自由도 폭이 넓어지게 된다.

5. 量과 質

고등교육이 엘리트' 고등교육의 범주를 벗어나 버렸을 때 質의 문제가 論議된다. 質的 水準을 유지하기 위하여 大學評價制度가 나오게 되는데 大學評價의 目的은 一定한 수준의 質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통한 엘리트 교육으로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학평가는 고등교육이 복잡다기한 나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유도되고, 고등교육이 획일적인 나라는 어느 정도의 수준과 범주아래 다양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대학평가가 잘못 시도되는 경우에는 物量의인 평가에 치중되어 내용면의 중요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 평가의 내용은 일정한 物量的 條件을 갖추었느냐와 學位過程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즉 學科의 프로그램의 設計, 教育內容 및 評價가 중요하다.

6. 大學의 構造

大學의 組織構造는 學問의 發展과 社會發展에 기여할 수 있도록 變化되어져야 한다. 오늘날의 綜合大學校는 다양한 학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專攻面에서의 다양한 교수집단과 다양한 연구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 綜合大學校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下部單位나 下位體制로서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면서 全體적으로 統合성을 마련할 수 있는 開放體制로 유도되어져야 한다.

현대사회 속에서 이러한 大學의 構造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財源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國·公·私立을 막론하고 모든 企業人이나 독지가가 大學에 財政支援를 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되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法的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Ⅶ. 結 論

매스 고등교육 속에서 高等教育의 世界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假說들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大學의 自律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政府와의 限界設定, 調整機構設置, 大學內의 政治的 意思決定 모델의 채택을 통한 自律과 이의 法規化를 서두르고 있으며, 또한 公的 期待로부터의 學問的 自律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대학이 길러야 할 人間像은 새로운 엘리트로서 일에 종사하는 신사로서, 專門家로서 새로운 메리트크리시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로, 과잉 전문교육, 또는 과잉 과학기술교육의 대응책으로 교양교육을 강화하여 고등교육을 리버럴교육의 범주에 넣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째로, 매스 고등교육과 엘리트 고등교육의 相互補完體制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에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로, 매스 고등교육 속에서 學問的 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論爭·調整·選擇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도 平等的(egalitarian) 단계에 들어 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전했고 문제점도 많다. 세계의 高等教育이 어느 단계에까지 발전하고 있는가의 수준을 파악하고 우리의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

(註)

- 1) W. Roy Niblett & R. Freeman Butts, ed., *Universities Facing the Future* (San Francisco and London: Jossey-Bass, 1972), pp. 255-266.
- 2) James A. Perkins, ed., *Higher Education: From Autonomy to Systems* (New York: Inter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1972).
- 3) John H. Van de Graaff, Burton R. Clark, Dorotea Furth, Dietrich Goldschmidt and Donald F. Wheeler, *Academic Power* (New York and London: Praeger Publishers, 1978).
- 4) *Report of the Harvard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5).
- 5) Inho Ha, *Historical Development of Specialization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1981).
- 6) Christopher Jencks & David Riesman, *Academic Revolution*. Reprint ed.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pp. 18-19.
- 7) For the argument that Yale Report created a climate in which intellectual purpose might develop, see Ralph Gabriel, *Religion and Learning at Yale: The Church of Christ in the College and University, 1957-1957* (New Haven, 1958), pp. 98-108.
- 8) Harvard University, *Report on the Core Curriculu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May 1979).
- 9) Inho Ha, op. cit.